

위대한 영웅, 세분을 모시고 지낼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제일 낫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말을 했겠지요. 베드로의 말에는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난을 싫어하고, 길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멀리하고 싶었던 베드로는 산위에서 초막을 짓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찌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떠넘기고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4)".

이미 예수님은 옛새전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베드로의 만류는 사단의 것으로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만류합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조금 더 교묘해졌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겸손과 공손을 가장한 이러한 불신앙은 한국 교회에 이미 널리 퍼져있습니다. 거친 말과 무례한 말에 발끈하지 않고 이렇게 교묘하게 포장되어 상대를 존중하는 척 하는 불신앙적인 말들이 얼마나 교회를 훼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목사와 많은 기독교인들은 젊잖게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칠고 무례하지만 정당한 이유를 대며 자신의 신앙을 공격하는 이들을 악인으로 낙인 찍습니다.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겸손으로 포장된 사악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발코니에서 구경하기를 좋아합니다. 직접 고난의 길에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멀리서 영화보듯이, 영화속에서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때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길 위로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고난을 피할 길만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우리는 계속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끌어냅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변명과 하지 못할 이유만이 덕지덕지 들어붙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2. 길 위에 있는 예수

베드로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빛이 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명령이고, 이것이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최송합니다. 지면관계로 나머지는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jeliclim> 에서 확인하세요)

교회 소식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 그교회는 2012년에 시작하는 작은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 그교회는 큰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생동감 넘치는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그교회에 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메일 (eventia@gmail.com) / 트위터 (@jeliclim) / 페이스북(아래)을 통해 교제할 수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jeliclim>

교회 연락처 / 홈페이지

임성국목사: eventia@gmail.com // 트위터 @jeliclim
02-996-2259, 010-8143-2259

교회 주소 / 약도

임시에배처소: 서울 강북구 수유2동 벽산아파트 12-603
(수유역에서 도보로 18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교회

The Church

주일 아침 예배 오전 11시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	다같이
합심기도	다같이
성경읽기	[마태복음 17:1-17]	다같이
설교	설교자
	"고난의 길 위에서 부르심"	
합심기도	다같이
찬양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주일 오후 성경공부 오후 2시

성경공부	3 월부터 시작합니다	임성국목사
------	-------------	-------



글 임성국

[설교] 고난의 길 위에서 부르심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

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마17:1-17)

마태복음 17장은 옛새후라는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면서 시작됩니다. 옛새는 그리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옛새전,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며 동시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것까지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피할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시도가 사단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옛새가 지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세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얼굴이 해같이, 옷이 빛같이 희어졌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모세이며 엘리야인지를 알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그 두명이 대화하는 것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여서 그들의 목소리로 들렸던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한번도 본적이 없는 모세와 엘리야를 알 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발코니에서 구경하기를 선호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군지를 알게 된 베드로가 나섭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게 좋겠습니다. 말만하시면 여기에 집 세채를 짓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모두 여기서 세상과는 동떨어져서 삽시다. 굳이 고난받고 죽으려 할 이유가 있습니까?

[칼럼] 길과 발코니 (2012.01.15.)

엘리스터 맥그래스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대학 시절 "위대한 기독교 사상이 10인"이라는 책을 통해서였다. 책은 일반인들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쓰여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와 수사로 가득찬 다른 어떤 책보다 알찼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신학사상을 쉽게 풀어 써 준 책이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 엘리스터 맥그래스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쉽게 말하고, 쉽게 쓰지만 중요한 것을 그냥 넘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최근에 그의 책 [고난이 무다, 신학이 답하다]라는 책을 손에 들었다. 책의 뒷장에 이렇게 쓰여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우리에게서 고난을 거두지 못하실까?"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난에 정면으로 맞선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셨다. 이 놀라운 진술을 시작으로, 신비한 고난의 패러독스를 천천히 따라가 보자.

과연 엘리스터 맥그래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지금까지 몇권의 책을 읽고, 몇분의 사색에 잠겨 보았지만 아직 그 대답을 분명히 찾지 못한 나로서는 맥그래스가 이 책을 통해 내게 답을 주었으면 좋겠다. 왜 용산에서 사람들이 죽어가야 했는지, 왜 한 가정의 가장들이 목숨을 끊는지, 왜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지 그에 대한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을 참으로 어렵다. C.S.루이스도 고난에 대해서 글을 썼지만 그 스스로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겠노라 고백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책의 서두에는 답을 제시하는 대신 맥그래스는 발코니와 길에 대해서 읽었던 책을 말한다. 발코니는 구경하는 곳이고 관찰하는 곳 이라면 길은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곳이다. 발코니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다면 길에는 참여자들로 북적댄다. 진리는 길에서 시작된다. 기독교 신앙이 진정 있어야 할 자리는 길이다. 길 위에서 사람들은 현실에 직면하며, 실제적인 문제로 고민한다.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모퉁이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다. 어둠속에서 혼자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반면 발코니에는 그러한 현실감이 없다. 두려움도 없다. 그저 멀리서 관찰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벌인다. 하지만 발코니의 관점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안된다. 그것은 필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항해를 떠나는 배에 지도가 필요 하듯 발코니에 펼쳐진 사색과 논쟁의 테이블은 우리에게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그 지도에는 고난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무심한 발코니의 관점은 종종 길위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

거인의 어깨에 앉은 난쟁이, 그것이 발코니를 설명해준다. 발코니에 있는 사람은 길위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가 발코니에서 내려와 길에 있는 이들과 대화를 시작한다면 그는 길위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수도 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발코니통신은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다.

많은 교회들은 복음을 말한다. 발코니 위에서 저 멀리 있는 희망의 나라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길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들이 길 위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고, 길 위에서 있는 사람들의 고난에 신경조차 쓰지 않기 때문이고, 단지 자신들만의 리그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길 위로 내려서지 않기에 보이는 그곳에 가지 않는다. 길 위에 있는 이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알지 못하기에 고난의 크레타 미궁을 방황하게 된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 를 질문하지 않는다. 고통을 주고 잊어버린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이제 발코니는 게토가 된다.

한국교회는 발코니에서 바른 논쟁을 하는 대신 어이없는 기독교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길위에 있는 이들이 이제 발코니에 있는 이들을 가르친다. 그때위로 살면서 교회라고 하다니, 그때위로 말하면서 목사라고 하다니... 쫓쫓...

고난의 끝을 본 사람이 다시 길로 나설때가 되었다. 머리속에 기억한 발코니의 풍경을 기억하며 그것을 지도로 삼아 이제 길 위에서 현장에 속한 고난을 함께 경험해야 할 때다. 교회는 낮아져야하고, 그래서 길 위에서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피할수 없는 것이며, 고난의 끝은 추억이 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벧전 2:19-23)